

빛고를 맛과 흥 4만명이 즐겼다

맥주 11종·20개 푸드트럭...상무 DJ센터 맥주축제 성료
디제잉 쇼 등 볼거리 풍성...10일간 국내외 방문객 문전성시

한 여름 광주의 더위를 시원한 맥주로 날렸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맥주 축제 'Beer Fest gwangju'가 4만여명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맥주축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을 돕고 지역민, 외국 선수단, 대회 관계자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11일부터 열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마셔Brewer'는 11종의 국내 외 맥주와 함께 빛고를 닭강정 등 20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해 광주 최초 광장맥주축제로 개최됐다.

지역의 직장인은 물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끈 '마셔Brewer'는 야외광장에 마련된 테이블과 계단에 앉아 흥겨운 음악과 생맥주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축제의 상징물로 개조된 수출용 컨테이너 앞은 생맥주를 구매하는 방문객의 줄이 매일 저녁 이어졌고, 또 다른 컨테이너에서는 디제잉 쇼가 펼쳐졌다.

20대부터 60대까지 청장년층 세대 모두를 만족시킨 90년대 히트곡 영상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8월 '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개최된 '일맥상통'(일주일간 맥주와 함께하는 상무지구 통큰 야시장)은 그 뜻처럼 맥주축제와 플라마켓의 '합'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의 뮤직분수와 프로야구 중계 전광판도 이번 행사 흥행에 한 몫을 담당했다. 더운 날씨에 미쳐 피서를 가지 못한 시민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뮤직분수 주위에 피크닉매트를 펴고 앉아 '물놀이'를 즐기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프로야구 중계를 맥주와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정중태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맥주축제와 같은 광장문화에 큰 호응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맥주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컨셉의 문화행사를 시즌별로 준비해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을 지역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겁게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유 먹는 광주 튼튼이들 29명 선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진행 요원들이 유아의 키를 재고 있다. <광주시 제공>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90여명 참가

광주시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10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4~6개월의 모유 수유아 90명이 참가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학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아기의 건강 상태, 신체 계측, 모아

관계 등을 평가해 대상과 으뜸상을 포함 총 29명을 선발했다.

행사장에서는 영유아 영양 상담과 보건소별 모자보건사업 홍보, 육아 관련 특별강좌도 열렸다.

김광은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과 교육·홍보를 통한 긍정적인 인식도 높여야 한다"며 "직장 내 여건 개선과 동료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우수 건축상 공모

내달 27일까지...5년 이내 건축물

올해 관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가 광주시 후원, 광주시건축사회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추진된다.

응모 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에 한한다.

작품 접수는 광주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오는 9월2일부터 27일까지 건축사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 2주간 현장심사를 하고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각각 금상 1개 작품, 은상 1개 작품, 동상 1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한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소설가 황석영씨 강연

27일 시청서 '광주시민대학 특강'

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소설가 황석영 씨를 초청해 '2019 광주시민대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과 광주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광주시민대학'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작가와 대화시간도 마련된다.

황 작가는 광주에서 집필활동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당시를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집필하는 등 광주지역과 밀접한 소설가다.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민주인권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민대학은 9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동행하는 시민대학 ▲모두에게 페미니즘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교육 등을 진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